대학 사회 속의 나

1990년에 나는 대학으로 돌아왔다. 대학원에 들어간 것이었다. 어떻게든 문학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컸다. 1987년 여름의 격변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행로는 민주화로 향했지만 5공화국의 뒤를 잇는 '6공화국'의 지리멸렬한 실상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게 했다. 더구나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잇따라 몰락하는 현실은 나로 하여금 안전(眼前)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의 결핍을 절감케 했다.

대학원은 지식 연마의 공간이지만 그에 앞서 하나의 사회다. 이제는 낡아빠진 용어가 되어버렸지만 이른바 그 전망(展望)이라는 것도 없이 기성사회에 편입되는 것이 싫어 선택한 곳이 대학원이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곳이 호랑이 굴이었다. 그곳이야말로 신분 질서 뚜렷한, 범해서는 안되는 금기와 선행해서 있었기에 따라야만 하는 규칙이 사회 변동과 거리를 둔 채 의연하게 군림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문학과 학문의 세계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은 잠깐이었고 격심한 가치관의 혼란이 나를 압박했다. 대학원 자체가 기성 사회였고 나는 기성에 편입되지 못한 예비생이었다.

"남들 하는 대로 해."

무서운 말이다. 그러나 이 무서운 말이 학문 탐구의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 가운데 하나였다. 학교 바깥 세상을 배회하다 다시 대학원에 들어온 나는 남들 하는 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에 따른 대가(代價)를 감수해야 했다. 후배들 가운데는 한때 같은 하숙집에서 생활했었는데도 모른 척하고 복도에서 만나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동기생들 가운데도 왜 남의 땅에 들어와 분위기 흐리냐는 식으로 마구 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다. 학위논문 중간 발표회장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발표자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논문 쓰는 방법과 체계가 다른 사람이 어느 선생님께 "남들 하는 대로 해", 라고 심하게 질책 받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이 남의 일로 생각되지 않았다.

대학원 생활 내내 나는 내가 남들 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것 같다. 또는 어떤 갈등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혹여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은 아닐까, 하고 고심해야 했다. 자연히 나의 태도는 내가 생각할 때 언제나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체구에 어울리지 않은 기성복을 입은 사람처럼 나는 어쩔 줄 모르고 엉거주춤한 태도로 대학원을 오르내렸던 것 같다. 그러나 남들에게도 나는 그렇게 보였을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겠

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는 선택적으로 기억되기에 나는 나의 그때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국외적 비판자의 태도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나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감당하려 안간힘을 다했을 것이다. 내 눈에 권력에 따른 서열과 차별의 세계로 비치는 대학원 세계를 견뎌내기 위해 필요 이상의 포즈를 취하면서 내가 연구자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려 애썼을 것이다. 대학원 사회 역시 1987년을 전후로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변모해 가고 있는데도, 늦게 배운 도둑질마냥 날 새는 줄 모르고 나 자신에게 각인된 대학원 사회의 몇몇 인상을 절대화하면서 알게 모르게 적응이 제1의 원리라도 되는 양 열심히 생각하고 행동한 적도 많았을 것이다.

1984년 대학에 들어온 이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나의 의식 속에 무상(無上)의 가치체계로 자리를 잡았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것은 사회 정치적 목표의 차원이었지 내 자신의 삶, 내가 소속한 공간과 그 속에서의 인간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원리로 깊이 있게 수용된 것 같지는 않다. 대학원이라는 기성의 사회 속으로 합류해 들어갔을 때 나는 나 자신의 민주주의를, 그 정당함을 시험해야 했다. 그러나 형체가 불분명한 것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겠는가. 나의 민주주의는 내 외부로부터 수용된 슬로건 외에는 형체가 불분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냉정해져야 함을 깨달았던 것 같다. 나의 과거를, 그 초라한 행적을 되돌아보았고 내가 생활해 가는 공간과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 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함을 알았다.

자세히 보면 그 공간은 단색이 아니고 사람들 또한 하나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은 풀장에 갇힌 물처럼 부동하면서 부패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간의 일부분으로서 서서히, 그러나 알 수 없는 사이에 성큼성큼, 변모해 가고 있다. 나 홀로 그와 같은 저류의 흐름에서 멀어져 뒤늦게 받아들인 과거의 윤리를 현재의 윤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었다는 주관적인 기억만 간직한 채 스스로 과거의 화석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요즘 내 생각이다.

최근에 나는 앞에서 말한 그 공간을 옮기는 인생의 변화를 만났다. 대학원에서 다시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어느 날 문득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다. 1학년이 대략 1982년생 전후라면 그들은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나는 기성세대를 구성하는 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민주적인 삶의 감각을 구비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가 속했던 세계의 좋은 요소조차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채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나의 세대 특유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그런 두려움이 있다. 이 두려움을 잃지 말아야겠다.

방민호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문학평론가.
1965년 충남 예산 출생.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저서로 『비평의 도그마를 넘어』, 『납함 아래의 침묵』,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등.